

##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 간의 관계

신승호<sup>1</sup>, 이정원<sup>2\*</sup>, 김창태<sup>2</sup>, 신소홍<sup>3</sup>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sup>2</sup>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sup>3</sup>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Seung-Ho Shin<sup>1</sup>, Jeong-Won Lee<sup>2\*</sup>, So-Hong Shin<sup>2</sup>, Chang-Tae Kim<sup>3</sup>

<sup>1</sup>Daegu Catholic University Chilgok Catholic Hospital nurse

<sup>2</sup>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Kyoungbuk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 그리고 전공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부산·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의 간호대학 2~4학년생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program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 만족도 영향요인은 개인적 동기( $\beta=0.567$ ), 사회적 동기( $\beta=0.230$ ), 내재적 가치( $\beta=0.374$ ), 외재적 가치( $\beta=0.181$ )가 예측되었다. 전공몰입 영향요인은 개인적 동기( $\beta=0.667$ ), 사회적 동기( $\beta=0.216$ ), 내재적 가치( $\beta=0.458$ ), 일반만족( $\beta=0.824$ )이 예측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전공 만족도는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 $\beta=0.591$ ), 직업 가치관과 전공몰입 간( $\beta=0.682$ )에서 부분 매개 역할로 예측되었다. 간호학 전공 과정이 어려운 만큼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학업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전공에 몰입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major commi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Google Form, from October 11th to 15th, 2020, targeting the 2nd-4th grade-year students of three nursing colleges in Busa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SPSS/WIN 22.0 program. The analysis predicted that factors influencing major satisfaction include personal motivation ( $\beta=0.567$ ), social motivation ( $\beta=0.230$ ), intrinsic values ( $\beta=0.374$ ), and extrinsic values ( $\beta=0.181$ ). Personal motivation ( $\beta=0.667$ ), social motivation ( $\beta=0.216$ ), intrinsic values ( $\beta=0.458$ ), and general satisfaction ( $\beta=0.824$ ) were predicted to influence major commitment.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predicted that major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commitment ( $\beta=0.591$ ), and between work values and major commitment ( $\beta=0.682$ ).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nursing as a major cour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elf-develop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ropouts, and appropriate adjustment of excessive study load for students to focus and immerse in the major.

**Keywords** :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본 논문은 제1저자 신승호의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용 요약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eong Won Lee(Dong-eui Univ)

email: leejw@deu.ac.kr

Received June 29, 2021

Revised August 30,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정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1]. 간호대학생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에 대한 몰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학업 과정이 타 학과와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간호 교육이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되면서 전공몰입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2].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 전공몰입에 차이를 보이므로[3], 전공 교육에 몰입함으로써 간호사로서 자질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4]. 국민건강을 돌보는 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공에 몰입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선택 시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할 때는 이에 따른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은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 가능성과 부모의 권유나 성적을 고려하여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 그렇지만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자신의 적성보다 취업률과 타인의 권유로 선택할 경우 중도 포기 이유가 된다[3]. 즉,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어 전공몰입 빈도가 낮아지고 간호학을 포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전공선택 동기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전공 수업 몰입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에게 직업 가치관은 인지적 능력 및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6]. 이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에 다양한 이론교육 과정과 실습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7]. 간호대학생은 대학 생활하는 동안 직업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므로[8], 전공하는 과목의 만족도나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자신이 설정한 목적과 비교하여 전공학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 전공 만족은 단순히 학과 선택의 만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와 진로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9].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학업 포기나 졸업 후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10],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고 간호사로서 자질 향상과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식함양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4]. 따라서 전공 만족도는 대학 생활 내내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리 전공 대학생의 올바른 전공 선택은 학습몰입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11], 재한 중국 유학생에게 지각된 높은 외재적 동기와[12], 대학 신입생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전공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3].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예비 특수교사의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전공 만족과 전공몰입의 관계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중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4], 호텔-관광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 중 일반만족, 인식 만족, 관계 만족 모두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학습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2], 호텔-관광 분야 전공 대학생의 직업 선택 및 결정의 가치와 적성, 흥미 추구는 자기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전공학과에 대한 전공몰입 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7]. 예비 특수교사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 몰입도의 관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14]. 전공 만족도는 전공 몰입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몰입할 수 있는 변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영향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의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넷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다섯째, 전공 만족도는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 직업 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및 전공몰입의 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고,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전공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하여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편의 표집 방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산·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의 간호대학으로서, 1학년은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에 대하여 상위 학년보다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샘플 사이즈가 19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락률과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오 기재 등으로 판단되는 2부(0.99%)가 탈락하고 최종 21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구글폼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배부·회수하였다. 설문 참여는 자발적 의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와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드는 시간은 10분 이내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 동기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Han[15]이 구성

하여 타당화 한 것이다. 하위요인으로 개인적 동기 4개 문항, 사회적 동기 3개 문항으로 총 7개 문항이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 동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Han[15]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85, 사회적 동기 .6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동기 .88, 사회적 동기 .74, 전체는 .73이었다 <Table 2>.

#### 2.3.2 직업 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Park과 Lee[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타당화 한 것이다. 하위요인으로 내재적 가치 3개 문항, 외재적 가치 4개 문항으로 총 7개 문항이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Park과 Lee[7]의 연구에서 외재적 가치 .73, 내재적 가치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가치 .712 외재적 가치 .76, 전체는 .76이었다 <Table 2>.

#### 2.3.3 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Lee[16]가 18개 문항으로 추출하고 이를 Shin[4]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타당화 한 것이다. 하위요인으로 인식 만족 6개 문항, 관계·교과 만족 6개 문항, 일반만족 5개 문항으로 총 17개 문항이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Lee[16]의 연구에서 .90, Shin[4]은 인식 만족 .92, 관계·교과 만족 .89, 일반만족 .90, 전체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 만족 .89, 관계·교과 만족 .90, 일반만족 .91, 전체는 .92이었다 <Table 2>.

#### 2.3.4 전공몰입

전공몰입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Kim[17]이 수정·보완하고 Shin[4]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타당화 한 것이다. 단일요인의 총 7개 문항이다. 측정의 범위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전공몰입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Kim[17]의 연구에서 .89, Shin[4]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Table 2>.

## 2.4 자료 분석 방법

간호대학생들에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인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넷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하였다.

다섯째, 전공 만족도와 전공몰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여섯째,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8]의 매개효과 분석법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 승인(DIRB-20208-HR-R-23)을 받은 후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알렸다. 설문 도중에 참여를 거부할 의사가 있으면 항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174명(79.8%)으로 많았

으며, '남자'는 44명(20.2%)으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는 '2학년' 77명(35.3%), '3학년' 74명(33.9%), '4학년' 67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43명(65.6%), '만족' 54명(24.8%), '불만족'은 21명(9.6%)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적은 '중위권'이 115명(52.8%)으로 과반이 넘었고, '상위권' 63명(28.9%), '하위권' 40명(18.3%)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유' 139명(63.8%)으로 '무' 79명(36.2%)보다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하여 '중간'이 160명(73.4%), '하' 43명(19.7%), '상' 15명(6.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전공 수업'이 128명(58.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실습 어려움' 42명(19.3%), '기타' 28명(12.8%), '학우와의 관계' 20명(9.2%) 순이었다. 졸업 후 직장 선택에 대하여 '대학병원'이 140명(64.2%), '일반병원' 64명(29.4%), '기타' 14명(6.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전공선택 동기 차이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불만족(M=3.22), 보통(M=3.53), 만족(M=3.77) 순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363, p=.001). 사후검정 결과 불만족과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 성적에 따른 차이는 하위권(M=3.24), 중위권(M=3.59), 상위권(M=3.73) 순으로 평균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939, p<.001). 사후검정 결과 하위권의 집단보다 중위권과 상위권의 집단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하(M=3.36), 상(M=3.49), 중(M=3.63)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411, p=.035). 사후검정 결과 하의 집단보다 중의 집단에서 높았다. 학교생활 어려운 점에 따른 차이는 기타(M=3.47), 전공 수업(M=3.50), 학우와의 관계(M=3.58), 실습 어려움(M=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162, p=.026). 사후검정 결과 전공 수업이 어렵다는 집단보다 실습이 어렵다는 집단이 높았다.

직업 가치관 차이에서는 평균 성적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권(M=4.03), 중위권(M=4.15), 상위권(M=4.36) 순으로 평균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807, p=.003). 사후검정 결과 하위권과 중위권 집단보다 상위권 집단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 차이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불만족(M=3.27), 보통(M=3.84), 만족(M=4.46) 순으로 학교

생활에 만족할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F=42.371$ ,  $p<.001$ ). 사후검정 결과 불만족보다 보통의 집단이 높았고, 이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 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 $M=3.69$ ), 중위권( $M=3.90$ ), 상위권( $M=4.16$ ) 순으로 평균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7.324$ ,  $p=.001$ ). 사후검정 결과 하위권과 중위권 집단보다 상위권 집단이 높았다.

전공몰입의 차이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불만족( $M=3.17$ ), 보통( $M=3.68$ ), 만족( $M=4.25$ ) 순으로 학교 생활에 만족할수록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F=17.230$ ,  $p<.001$ ). 사후검정 결과 불만족 집단보다 보통의 집단이 높았고, 이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에서 높았다. 평균 성적에 따라 하위권( $M=3.26$ ), 중위권( $M=3.70$ ), 상위권( $M=4.22$ ) 순으로 평균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유

Table 1. Variation i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s caus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218)	Division	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M±SD	M±SD	M±SD	M±SD
Gender	Male	44(20.2)	3.49±.66	4.09±.49	3.88±.72	3.74±.87
	Female	174(79.8)	3.59±.61	4.21±.51	3.95±.62	3.78±.83
	t/F(p)		.856(.356)	1.877(.172)	.383(.537)	.066(.798)
Grade-year	Sophomore	77(35.3)a	3.59±.68	4.26±.53	3.95±.65	3.91±.85
	Junior	74(33.9)b	3.60±.57	4.22±.48	3.97±.72	3.76±.88
	Senior	67(30.7)c	3.50±.61	4.08±.51	3.87±.53	3.63±.76
	t/F(p)		.629(.534)	2.504(.084)	.455(.635)	2.033(.133)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	21(9.6)a	3.22±.86	4.14±.75	3.27±.80	3.17±1.16
	Average	143(65.6)b	3.53±.57	4.16±.50	3.84±.55	3.68±.75
	Satisfied	54(24.8)c	3.79±.57	4.29±.38	4.46±.38	4.25±.67
	t/F(p)		7.363(.001)	1.518(.221)	42.371(<.001)	17.230(<.001)
	Scheffe		a,b<c		a<b<c	a<b<c
GPA	Lower	40(18.3)a	3.24±.42	4.03±.55	3.69±.61	3.26±.76
	Middle	115(52.8)b	3.59±.64	4.15±.52	3.90±.68	3.70±.81
	Upper	63(28.9)c	3.73±.63	4.36±.41	4.16±.51	4.22±.72
	t/F(p)		7.939(<.001)	5.807(.003)	7.324(.001)	19.415(<.001)
	Scheffe		a(b,c	a,b<c	a,b<c	a<b<c
Club activities	None	79(36.2)	3.49±.64	4.11±.53	3.87±.70	3.60±.90
	Yes	139(63.8)	3.61±.61	4.23±.49	3.97±.60	3.87±.78
	t/F(p)		1.946(.165)	2.761(.098)	1.139(.287)	5.376(.021)
Family income level	Low	43(19.7)a	3.36±.62	4.08±.53	3.76±.69	3.47±.91
	Middle	160(73.4)b	3.63±.61	4.21±.50	3.99±.63	3.85±.80
	High	15(6.9)c	3.49±.58	4.31±.50	3.89±.54	3.78±.83
	t/F(p)		3.411(.035)	1.477(.231)	2.158(.118)	3.552(.030)
	Scheffe		a<b			a<b
Difficulties in school life	Relationships with classmates	20(9.2)a	3.58±.60	4.17±.55	3.93±.53	3.87±.84
	Class in major	128(58.7)b	3.50±.62	4.13±.51	3.89±.63	3.63±.77
	Difficulties in practice	42(19.3)c	3.82±.55	4.28±.53	4.09±.52	4.07±.76
	Other	28(12.8)d	3.47±.63	4.34±.40	3.93±.87	3.89±1.09
	t/F(p)		3.162(.026)	1.936(.125)	.979(.404)	3.422(.018)
	Scheffe		b<c			b<c
Job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140(64.2)a	3.57±.62	4.21±.49	4.01±.57	3.86±.76
	Ordinary hospital	64(29.4)b	3.55±.60	4.13±.55	3.84±.68	3.65±.86
	Other	14(6.4)c	3.54±.74	4.22±.52	3.65±.99	3.46±1.30
	t/F(p)		.038(.963)	.643(.527)	2.878(.058)	2.406(.093)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9.415$ ,  $p<.001$ ). 사후검정 결과 하위권 집단보다 중위권 집단이 높았고, 이보다 상위권 집단이 높았다. 동아 활동에 따라 유( $M=3.87$ )가 무( $M=3.6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t=5.376$ ,  $p=.021$ ).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하( $M=3.47$ ), 상( $M=3.78$ ), 중( $M=3.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552$ ,  $p=.030$ ). 사후검정 결과 하의 집단보다 중의 집단에서 높았다. 학교생활 어려운 점에 따라서는 전공 수업( $M=3.63$ ), 학우와의 관계( $M=3.87$ ), 기타( $M=3.89$ ), 실습 어려움( $M=4.07$ )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442$ ,  $p=.018$ ). 사후검정 결과 전공 수업이 어렵다는 집단보다 실습이 어렵다는 집단에서 높았다.

### 3.2 기술통계와 신뢰도

주요 변수의 평균과 정규성 검정을 위한 기술통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공선택 동기에 대하여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적 동기 3.75점, 사회적 동기 3.39점이었고, 전체 점수는 3.57점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내재적 가치 4.13점, 외재적 가치 4.25점이었고, 전체 점수는 4.19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에 대하여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인식 만족 4.46점, 관계 교과 만족 3.48점, 일반만족은 3.87점이었고, 전체 점수는 3.9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식 만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공몰입에 대하여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3.77점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포를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인데, 본 연구에서 왜도는  $-.955\sim.027$ 이며, 첨도는  $-.519\sim.416$ 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시켜 정규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3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도,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전공선택 동기는 직업 가치관( $r=.480$ ,  $p<.01$ )과 전공 만족도( $r=.555$ ,  $p<.01$ ), 전공몰입( $r=.618$ ,  $p<.01$ )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직업 가치관은 전공 만족도( $r=.462$ ,  $p<.01$ ), 전공몰입( $r=.465$ ,  $p<.01$ )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고, 그리고 전공 만족도는 전공몰입( $r=.752$ ,  $p<.01$ )과 강한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 3.4 전공 만족도 영향요인

독립변수인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이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이 59.95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개인적 동기( $\beta=.567$ ,  $t=10.355$ ,  $p<.001$ )와 사회적 동기( $\beta=.230$ ,  $t=4.194$ ,  $p<.001$ )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35.2%이었다.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이 30.549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업 가치관의 하위요인 내재적 가치( $\beta=.374$ ,  $t=5.814$ ,  $p<.001$ )와 외재적 가치( $\beta=.181$ ,  $t=2.818$ ,  $p=.005$ )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4%이었다.

### 3.5 전공몰입 영향요인

독립변수인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이 96.778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개인적 동기( $\beta=.667$ ,  $t=13.456$ ,  $p<.001$ )와 사회적 동기( $\beta=.216$ ,  $t=4.358$ ,  $p<.001$ )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46.9%이었다.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이 35.98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업 가치관의 하위요인 내재적 가치( $\beta=.458$ ,  $t=7.257$ ,  $p<.001$ )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24.4%이었다.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이 173.403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 만족도의 하위요인 일반만족( $\beta=.824$ ,  $t=16.027$ ,  $p<.001$ )이 정(+)의 방향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70.4%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Category (n=218)	M	SD	Skewness	Kurtosis	Cronbach's $\alpha$
Personal motivation	3.75	.94	-.699	.193	.882
Social motivation	3.39	.87	-.171	-.519	.749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3.57	.62	-.027	-.149	.731
Intrinsic values	4.13	.66	-.465	-.182	.712
Extrinsic values	4.25	.58	-.508	-.379	.765
Work values	4.19	.51	-.309	-.436	.762
Satisfaction in perception	4.46	.58	-.955	.177	.890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and subjects	3.48	.89	-.191	-.338	.904
General satisfaction	3.87	.82	-.626	.416	.919
Major satisfaction	3.94	.64	-.494	.273	.928
Major commitment	3.77	.84	-.366	.054	.947

Table 3. Correlation

Divisio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1			
Work values	.480**	1		
Major satisfaction	.555**	.462**	1	
Major commitment	.618**	.465**	.752**	1

\*\*:  $p < .01$ 

Table 4.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work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Category (n=218)	Subordinate variable: Major satisfaction						
	B	SE	$\beta$	t	p	R <sup>2</sup>	F(p)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Personal motivation	.386	.037	.567	10.355	<.001	.352	59.956 (<.001)
Social motivation	.169	.040	.230	4.194	<.001		
Work values							
Intrinsic values	.365	.063	.374	5.814	<.001	.214	30.549 (<.001)
Extrinsic values	.201	.071	.181	2.818	.005		

Table 5.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on major commitment

Category (n=218)	Subordinate variable: Major commitment						
	B	SE	$\beta$	t	p	R <sup>2</sup>	F(p)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Personal motivation	.593	.044	.667	13.456	<.001	.469	96.778 (<.001)
Social motivation	.208	.048	.216	4.538	<.001		
Work values							
Intrinsic values	.584	.080	.458	7.257	<.001	.244	35.987 (<.001)
Extrinsic values	.140	.091	.097	1.529	.12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perception	-.056	.065	-.039	-.865	.388	.704	107.404 (<.001)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and subjects	.060	.043	.064	1.392	.165		
General satisfaction	.839	.052	.824	16.027	<.001		

### 3.6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단계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약 30.5%( $R^2=.305$ )의 설명력을 보였고,  $\beta=.555$ ,  $t=9.809$ ( $p<.001$ )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식도  $F=96.217$ ( $p<.001$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을 예측하는데 약 37.9%( $R^2=.379$ )의 설명력을 보였고,  $\beta=.618$ ,  $t=11.543$ ( $p<.001$ )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식은  $F=133.250$ ( $p<.001$ )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전공몰입을 예측하는데 약 62.0%( $R^2=.620$ )의 설명력을 보였고, 전공선택 동기( $\beta=.290$ ,  $t=5.754$ ,  $p<.001$ )와 전공 만족도( $\beta=.591$ ,  $t=11.737$ ,  $p<.001$ )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beta=.618$ )에 비하여 3단계( $\beta=.290$ )에서 감소하여 '부분 매개' 효과로 예측되었다. 회귀식의  $F=177.682$ ( $p<.001$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7.54$ ( $p<.001$ )에서도 유의미하였다.

### 3.7 직업 가치관 전공몰입 간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

직업 가치관과 전공몰입 간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1단계에서 직업 가치관은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약 21.0%( $R^2=.210$ )의 설명력을 보였고,  $\beta=.462$ ,  $t=7.653$ ( $p<.001$ )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식도  $F=58.566$ ( $p<.001$ )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직업 가치관은 전공몰입을 예측하는데 약 21.3%( $R^2=.213$ )의 설명력을 보였고,  $\beta=.465$ ,  $t=7.726$ ( $p<.001$ )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식도  $F=59.689$ ( $p<.001$ )로 유의미하였다. 3단계에서 직업 가치관과 전공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전공몰입을 예측하는데 약 57.9%( $R^2=.579$ )의 설명력을 보였고, 직업 가치관( $\beta=.150$ ,  $t=3.024$ ,  $p=.003$ )과 전공 만족도( $\beta=.682$ ,  $t=13.737$ ,  $p<.001$ )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beta=.465$ )에 비하여 3단계( $\beta=.150$ )에서 감소하여 '부분 매개' 효과로 예측되었다. 회귀식은  $F=150.131$ ( $p<.001$ )로 유의미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66$ ( $p<.001$ )에서도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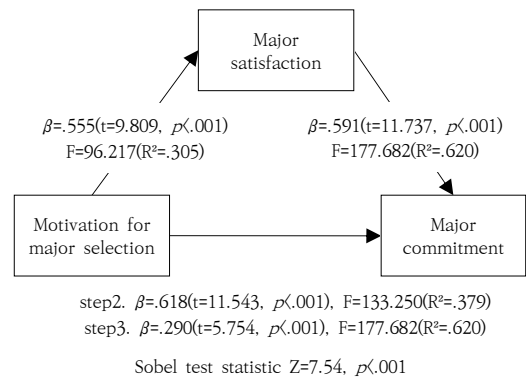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major commi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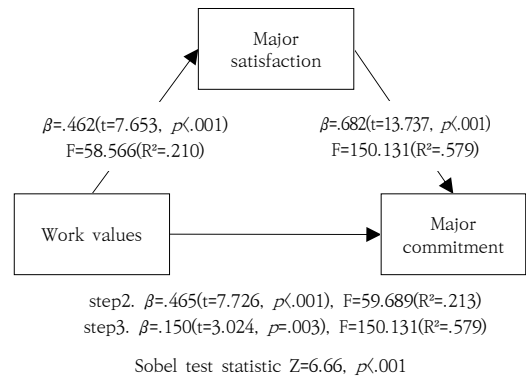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values and major commitment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전공몰입은 향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간호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전공몰입의 예측요인으로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 그리고 전공 만족도를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이들 요인 간에 전공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한 결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정(+)의 방향으로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 서비스전공자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9]에 의해 지지가 되었고, 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적 동기는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지만, 사회적 동기는 기각되었다는 결과는 [20]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전공을 선택할 당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입학 후 학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1]. 즉,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고 흥미와 능력 발휘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안정된 직업으로 판단하고 있다[19].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적성이나 흥미를 위주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전공 만족도가 높다고 확인한 결과[22]를 보면 자신의 적성과 맞는 전공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적성과 소질이 전공 만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면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전공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한 결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정(+)<sup>의</sup> 방향으로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 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여[23] 본 연구를 지지한다. 즉,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높으면 간호학 전공에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리·외식 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도에 정(+)<sup>의</sup>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결과[15,20]도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은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이처럼 전공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전공 수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결정에 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발휘, 성취감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학교생활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일치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학교생활에서 성취감과 보람,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15].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하여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성취감을 가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성과 흥미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내재적 가치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한 결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정(+)<sup>의</sup> 방향으로 전공몰입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리 전공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하위요인인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1]와 일지역 대학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전공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13]. 그리고 재한 중국 유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은 정(+)<sup>적</sup> 상관관계에 있었다[12].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전공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재능, 희망 직업과 일치하는 동기로 전공을 선택할 때 수업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학습능력이 높아지게 된다[21]. 결국, 전공선택 동기가 긍정적인 때 전공 수업에 몰입하게 한다. 전공선택 과정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이면서 대학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전공선택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적 선택이 아니고[21], 사회로 진출하기 전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이므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의 실마리가 된다. 그렇지만 전공선택의 잘못은 휴학 및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직업으로 전향한다[24]. 대학생의 전공선택 과정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수단이면서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근원이 되므로 잘못된 전공선택은 전공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전공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이 타 학과보다 학업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 부적응을 경험하고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간호학을 선택할 때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 그리고 장래 직업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한 결과, 내재적 가치가 정(+)<sup>의</sup> 방향으로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이 전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14]와 일치한다. 자신이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직업 가치관이 높으면 전공몰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직업 가치관 중 외재적 가치관은 전공몰입에 부정(-)<sup>적</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5]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다르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만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내재적 가치인

직업 선택 및 결정이 성취감이나 능력 발휘 그리고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외재적 가치인 급여나 안정적 직업, 명예, 근로환경 등 때문에 전공 수업에 몰입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 가치관은 합리적인 취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6]. 학업에 대한 목표설정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느낄 때 전공 수업에 몰입할 의사가 있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목표를 위해 전공 수업에 몰입할 의사가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가치관은 개인의 기대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자기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 정립은 확고한 직업윤리 의식을 일깨워 전공 수업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므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의 직업관을 가지게 하여 성취감 향상으로 자신의 능력 발휘와 흥미를 높여 줄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한 결과, 일반만족이 정(+)의 방향으로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1-4] 결과와 일치 한다. 즉,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은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었다[7].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 방향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므로[26], 대학 생활의 만족도가 단순히 학과 선택의 만족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9]. 더욱이 전공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대학 생활 내내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27]. 특히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주관적인 안녕감, 학업 성과, 경력 개발, 자기효능감, 목표 지향성 등의 다양한 요인과의 관계가 연구되어[28]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 만족은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움이지만 진로를 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간호대학생에게 전공 만족도는 향후 간호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학습 과정에서 교육적 책임과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에 몰입하여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향상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만약에 간호학에 대한 과중

한 부담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0]. 이러한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다[30]. 따라서 간호학 전공은 자질, 책임감 등을 고려하고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교과목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필요가 있고, 간호학에 대하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공 만족도가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 매개 역할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논의할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내재적 전공선택 동기와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3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대해 인식한 전문성, 정보, 문화가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32], 전공 만족도는 전공 수업 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공 만족에 관한 연구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말하게 하기 때문이다[26].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은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학업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한 전공을 둘러싸고 있는 동기화를 뒷받침하여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학 과정에서 간호학 전공은 성적이나 주위의 권유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인식을 하고 선택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로 인한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전공 수업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일곱째, 전공 만족도가 직업 가치관과 전공몰입 간 매개 역할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특수교사의 직업 가치관과 전공 몰입도의 관계에서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여[14],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전공 만족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인 욕구 충족의 차원으로 볼 수 없고[33], 전공선택 동기나 교과과정, 관계 만족, 학교 만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27].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전공 수업에 몰입하고 진로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직업 가치관을 가짐에 있어서 간호학에 대하여 성취감을 중요시하거나 자신의 학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시키고, 적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전공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간호학에 대하여 떳떳하게 생각하거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서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스러우면서 가치 있는 것을 배운다고 인식되면 전공 수업에 의욕을 높이고 흥미를 느끼며 수업이나 과제 등의 수행에 열의를 갖게 한다. 즉 간호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관을 높게 인식하면서 전공 수업에 대하여 만족하면 간호학 전공에 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몰입에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는가를 알아보고, 이들 요인 간에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전공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그리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전공몰입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그리고 내재적 가치 또한 일반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몰입 간에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로 예측되었고, 직업 가치관과 전공몰입 간에도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 시 학생의 적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간호사로서의 직업 가치관을 증대 시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수집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대상을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몰입 영향요인을 예측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몰입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은 대학 수업 과정에서 재형립되어야 한다. 어려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여 증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기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과다한 학업 분량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표본에서 1학년을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확대 해석에 제한을 둔다.

## References

- [1] D. O. Kim, H. J. Lee, A. Y. Lee,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 pp. 349-357,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349>
- [2]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57>
- [3] H. J. Shin, H. J. Park,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2, pp. 643-664, 2017.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7.17.22.643>
- [4] S. H. Shin,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Korea, 2019.
- [5] H. S. Park, "Associations of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with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major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7, No. 4, pp. 332-341, 2018.
- [6] H. J. Lee, Y. K. Yoon,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es of dance major students on vocational value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35, No. 1, pp. 1-12, 2018.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8.35.1.1>
- [7] S. K. Park,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 12, No. 1, pp. 219-235, 2016.
- [8] M. 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95-105, 201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9.20.11.96>
- [9] J. W. Lee, N. Y.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 pp. 311-320,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1.311>
- [10] K. M. Yang,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445-453,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12.445>
- [11] T. H. Choi, “The effects of major selecting motivation of culinary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commitment and major satisfaction”, Korean Academy of Food service Industry and Management, Vol. 13, No. 2, pp. 5-24, 2017.
- [12] M. H. Hou, Y. H. Kim,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majo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of choosing major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urism Research, Vol. 43, No. 1, pp. 275-299, 2018.  
DOI: <http://dx.doi.org/10.32780/ktidoi.2018.43.1.275>
- [13] J. E. Chu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choice motivation and perceived autonomy, learning flow of university freshma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3, pp. 1225-1240,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3.89>
- [14] J. E. Kim, H. W. Lee, “The effect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 value on major immersion about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center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5, No. 4, pp. 77-96, 2019.  
DOI: <http://dx.doi.org/10.33770/JEBD.35.4.5>
- [15] H.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 targe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specialized in cooking/dining related”, Ph.D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Korea, 2014.
- [16]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2004.
- [17] K. 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2015.
- [1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19] I. S. Park, M. J. Kim, “Influence of job selection motive and occupational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irlin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9, No. 6, pp. 139-151, 2015.
- [20] C. S. Jeon, H. J. Shin, “Influences of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nd work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 34, No. 5, pp. 63-83, 2019.  
DOI: <http://dx.doi.org/10.21719/IJTMS.34.5.4>
- [21] E. Y. Oh, “Effects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s of airline service students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Ph.D dissert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Korea, 2019.
- [22]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61>
- [23] H. Y. Kim,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work value between nursing students by the grad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3, No. 1, pp. 41-51, 2015.
- [24] S. J. Kim, K. H. Ye, “Relation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students of dept. of optometry: focusing on the chungcheong area”,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 16, No. 3, pp. 249-260, 2014.
- [25] J. S. Kang,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2, pp. 447-45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2.447>
- [26] S. H. Yoon, S. H. Song, “The medi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regardi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cused o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4, pp. 591-600,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591>
- [27] D. K. Lim, H. S. Kwon, W. J. Oh,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6, No. 4, pp. 85-109, 2016.

DOI: <https://doi.org/10.35273/jec.2016.6.4.005>

- [28] L. Sovet, M. S. Park, S. Jung, “Valid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19, No. 2, pp. 1121-1131, 2014.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3-0537-y>
- [29]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8, pp. 403-418, 2016.
- [30]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No. 1, pp. 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31] Y. J. Song, G. 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4, No. 4, pp. 61-77, 2016.  
DOI: <http://dx.doi.org/10.22327/kei.2016.34.4.061>
- [32] D. J. Choi, M. S. Lee, “The effect of person-major fit on social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 culinary art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22 No. 6, pp. 69-91, 2019.
- [33] H. J. Bang, “The relation between consideration level for career and immersion level in major study of students in beauty art major”,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15 No. 1, pp. 69-77, 2019.

신 승 호(Seung-Ho Shin)

[정회원]



- 2019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21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21년 8월 ~ 현재 : 간호사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의료정보

이 정 원(Jeong-Won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 2008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한의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의료경영, 경영정보

김 창 태(So-Hong Shin)

[정회원]



- 1993년 3월 : 동경경제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경영학석사)
- 1997년 3월 : 동경경제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경영학박사수료)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료경영, 경영정보, 고객센터

신 소 흥(So-Hong Shin)

[종신회원]



- 2018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fundamental nursing, QOL